

## C-6. Deep intrabony defect를 가진 상악 전치부에서 골이식술의 임상증례

황유미<sup>1</sup>, 김성조, 짝점일, 이주연<sup>2</sup>

부산대학교 치주과학교실(<sup>1</sup>발표자, <sup>2</sup>지도교수)

### 연구배경

재생형 치주치료는 이식술 비동반 신부착과 이식술 동반 신부착술로 나눌 수 있다.

2-wall 또는 3-wall intrabony defect의 골이식 치료는 치주조직재생에 있어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제시된바 있다.

본 증례에서는 치아의 장기적 유지와 더불어 상당한 심미성이 요구되는 상악 전치부에서 깊은 2-wall 또는 3-wall intrabony defect를 가지는 세 가지 임상 증례에서 alloplastic material과 allogenic material을 이용한 골이식술 치험례를 보고하고자 한다.

### 연구방법 및 재료

상악 전치부에 치주염으로 인해 7~8mm이상의 치주낭과 방사선학적 골소실을 보이는 deep intrabony defect를 가진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.

두 증례에서는 골이식 재료로 alloplastic material (BioGran)을 사용하였으며, 한증례에서는 allogenic material (BBP)을 사용하였다.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가진 후 임상적, 방사선적 검사를 시행하였다.

### 연구결과

모든 임상증례에서 임상부착획득으로 인해 치주낭 감소를 보였으며 방사선 사진상 골재생 양상이 관찰되었다. 특히 장기간(7년간)의 follow up을 시행한 한 개의 증례에서는 단기적 회복 후 추가적 치조골 소실 없이 뚜렷한 치조백선을 보이며 치아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. 그러나 골이식술 후 다양한 양의 치은 퇴축 양상이 세 가지 임상증례 모두에서 발생하였다.

### 결론

골이식술을 시행한 상악 전치부에서 임상 부착 획득과 방사선 사진상의 골재생양상을 보였으며 치아의 예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예후를 보이는 상태로 개선되었다. 특히, 7년간 follow up한 한 개의 증례를 통해 골이식술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. 그러나 모든 증례에서 골이식술 후 다양한 정도의 치은 퇴축 양상을 보였다. 따라서 심미성이 요구되는 전치부의 경우 신중한 증례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